

현대차, 美·中 등 글로벌 있는 미래혁신 기지 세운다

5곳에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신설
유망 스타트업 발굴·기술 확보

현지 혁신 생태계 긴밀교류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 모색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세계 5곳에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센터) 거점을 갖추고 글로벌 혁신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그룹은 8일 "대한민국을 비롯해 매년 수 백, 수 천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 등 5개 도시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 핵심 분야 경쟁력 구축을 위해 전략기술 본부를 출범한 바 있다.

◆연내 한국-독일-중국 등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신설

현대차그룹은 아시아-미국-유럽-중국 등 전 세계를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혁신을 주도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혁신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는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이들과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에 나서게 된다. 또 스타트업을 포함해 현지 대학, 전문 연구기관, 정부, 대기업 등 폭넓은 혁신 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한 교류를 갖고 공동 연구활동을 벌여 신규 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즈니스 창출을 모색하는 사업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발표된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 중국, 독일에 각각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추가 신설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기존 실리콘밸리 사무소 '현대벤처스'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한 '현대 크래들'을 개소했으며, 올해 초 이스라엘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신규 혁신 거점이 오픈된다.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는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R&D) 거점들과 다양한 혁신 실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아이템 발굴에서 사업화에 이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

/현대차그룹

르기까지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에도 연말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 베이징은 상하이, 선전과 함께 중국의 창업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 최대 인터넷 업체 바이두가 2000년 스타트업으로 첫발을 내딛은 곳이다. 베이징대학교, 인민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 매년 뛰어난 인재들이 대거 유입된다.

베를린 역시 유럽 최대 스타트업 태동 도시로 꼽힌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으로 불리는 베를린은 기회를 찾는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 몰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베이징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중국 특화 기술을 확보하고 현지 대형

ICT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 거점으로, 베를린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솔루션 기반의 신사업 기회 확보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각각 차별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美 '현대 크래들' 핵심 역할 수행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현대 크래들'은 다른 혁신 네트워크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과 차별화된 핵심 역할을 추가로 맡는다. 다양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핵심 분야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 전세계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업무도 추진한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의 운영 총괄은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가 맡는다. 전략기술본부는 오픈 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그룹 전체의 신사업 플랫폼 구축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지역에 오픈 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차원"이라며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미래 그룹 성장을 이끌 신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센터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창출했다.

크래들은 2005년 설립된 인공지능, 음성인식 전문 기업 사운드하운즈에 자동차업체로는 유일하게 2011년 투자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2012년부터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동 개발을 추진, 차량용 음악 정보 검색 서비스 '사운드하운드' 등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14년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 차량에 음악 정보 검색 서비스 '사운드하운드'를 최초로 탑재한 바 있으며 이달 중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벨로스터에도 국산차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출시될 신차에는 사운드하운즈의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탑재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0억 자발광 화소로 만든 '올레드 협곡'

LG전자, 美 CES 전시장 입구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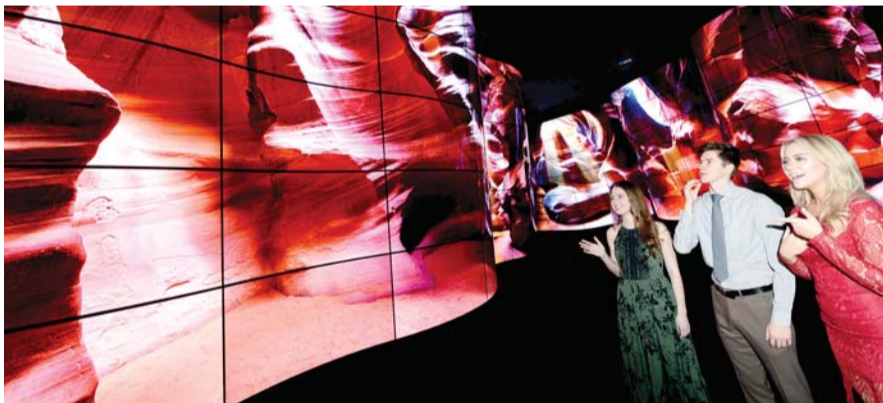
세계 최대 사암(砂岩) 협곡 엔털로프케니언, 세계 최대 해안 빙하 지역의 컬럼비아 빙원, 세계 최대 규모 폭포 이구아수 폭포가 눈앞에...

LG전자가 오는 9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8' 전시장 입구를 '올레드 협곡'으로 장식했다.

올레드 협곡은 55인치 올레드 246장으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16m, 너비 16m, 높이 6m에 이른다. 가운데 구부러진 길을 만들고, 길 양 옆에 마치 협곡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올레드 월을 세웠다.

올레드에서는 '올레드로 만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주제로 협곡, 빙하, 폭포, 숲, 하늘, 눈보라 등 동영상 2분 0초 동안 상영한다.

관객들은 28m에 달하는 길을 걸으며 총 20억개 올레드 자발광 화소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영상을 경험하게 된다.



LG전자가 CES 2018에서 전시장 입구에 곡면 55형 올레드 246장을 이용해 초대형 '올레드 협곡'을 설치했다. 관람객들은 총 20억 개 자발광 화소가 만들어내는 협곡, 빙하, 폭포, 숲 등 환상적인 자연 경관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

LG전자는 올레드 협곡을 통해 올레드만이 구현할 수 있는 생생한 색감과 완벽한 블랙의 대비를 보여준다.

LG전자는 그간 다양한 형태의 올레드 구조물을 설치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 2015년 날개 모양으로 올레드 TV 64대를

펼쳐놓은 '비상의 날개' ▲ 2016년 천정에 돔 형태로 올레드 TV 122대를 배치한 '돛씨어터' ▲ 2016년~2017년에는 터널 형태로 올레드 사이니지 216대를 이어붙인 '올레드 터널' 등을 선보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m@

SK이노베이션, 평창올림픽 성공 캠페인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스폰서 SK이노베이션이 개막이 눈앞에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새로운 기업PR 캠페인을 광고를 선보였다.

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가 선보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응원 동영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 100만건을 넘어섰다. 영상 공개 9일 만의 성과다. 모션 그래픽 기법을 활용해 달리기, 스피드스케이팅, 스키 등 다

양한 운동 모습을 보여주며 점차 높아지는 속도를 보여준다.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벌여 37km/h의 속도를 보여주는 달리기로 시작해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며 속도도 54km/h로 높아진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무동력 운동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는 161.9km/h를 기록한 스키다. 140km/h를 상회하는 루지, 시속 170km/h의 꺾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아이스하키 등 동계올림픽은 스포츠의 향연이다. 광고 속에서 점



SK이노베이션이 선보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광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차 높아지던 스피드는 국민들의 응원을 만나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넘어선다.

/오세성 기자 sesung@

NHN엔터 직원복지 강화 '워라벨' 문화 정착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제도 신설
퍼플타임제 등 탄력근무제 시행

NHN엔터테인먼트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 라이프 밸런스(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기업문화 정착에 나선다.

NHN엔터테인먼트는 8일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도입 '퍼플타임제'를 시행해 왔다. 퍼플타임제는 오전 8시30분에서 10시30분 내 출근시간을 선택, 출근 이전 혹은 이른 퇴근 이후 시간을 직원 본인과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새해부터는 임신한 직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리받침쿠션과 발받침스툴, 전자과 차단 담요 등으로 구성된 '프리맘 서포트 키트'를



NHN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임신부키트를 착용한 직원.

/NHN엔터테인먼트

제공한다. 또 직원본인에게만 주어지던 100만원 상당의 무료종합건강검진 혜택을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님 등 가족 2인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책가방, 운동화와 다양한 학용품 세트도 구성된 입학선물패키지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자녀들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글과컴퓨터, 노진호 신임대표 내정

한글과컴퓨터가 노진호 전 우리에프아이에스 본부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한컴은 8일 공시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 노 전 우리에프아이에스 본부장을 내정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김상철 대표와 각자대표 체

제를 꾸릴 예정이다.

노 내정자는 한국 후지쯔와 LG CNS를 거쳐 우리금융 IT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금융서비스 본부장을 역임했다. 30년 동안 IT,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인공지능(AI), 챗봇, 로봇, 블록체인 등 신기술 프로젝트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 신규 사업과 한컴 신성장동력 발굴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기자